

## ‘철학적인’ 의료윤리학 논문에 대한 통계적 분석

- 학회지 논문 102편을 중심으로 -

김상득\*

### I. 들어가는 말: ‘의료윤리’와 ‘의료윤리학’

#### 1. Medical Ethics란 무엇인가?

일단 영어 ‘medical ethics’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우선 ‘의료윤리’는 ‘의학윤리’와 구분되어야 한다. 의학윤리는 의학적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윤리를 말하는 반면에, 의료윤리는 의료 현장 전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윤리를 뜻한다. 의료윤리는 의학윤리를 포함하지만,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구분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돌보는 데 겪는 윤리적 물음은 의학윤리에 속하지는 않으나 의료윤리에는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의료와 간호에 대한 개념 정의에 따라 이러한 용어 정리가 부적합할 수 있지만, 필자는 간호적 돌봄 역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한 요소로 간주하여, 간호윤리 역시 의료윤리의 한 부분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실제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도 간호윤리 관련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간호윤리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

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임상윤리(clinical ethics)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환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진료를 임상으로 간주한다면, 임상윤리란 환자의 진료와 직접 연관되어 제기되는 윤리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임상이란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상관없이 임상윤리는 의료의 한 부분임에 분명하기에, 임상윤리 역시 의료윤리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여기서 의료윤리란 개념을 간호윤리, 의학윤리, 임상윤리 등 의료 현장(medical practice)에서 발생하는 모든 윤리를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앞으로 이런 개괄적인 정의 내지 구분을 넘어, 의료윤리에 대한 보다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개념 정의 및 구분이 필요하다.<sup>1)</sup>

‘의료윤리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의료윤리에 관한 학문적 연구요, 다른 하나는 의료에 관한 윤리학적 연구이다. 후자는 전자의 특수한 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의료윤리에 관한 모든 연구가 전자의 의미로 의료윤리학에 속한다. 즉, 의료윤리에 관한 역사학적 연구, 사회학적 연구, 교육학적 연구 또는 법학적 연구도 모두 의료윤리학에 속한다. 하지만 의료에 관한 윤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063-270-3244. ethics@jnu.ac.kr

1)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료윤리학(2판). 서울 : 계축문화사, 2003. <제3절 의료윤리의 개념>에서도 의료윤리 내지는 의료윤리학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고 단지 주된 문제 영역만을 기술하고 있다.

리학적 연구는 그 차원이 다르다. 윤리학은 철학의 한 분야이다. 윤리학은 도덕철학으로 윤리 내지 도덕에 관한 철학적 탐구를 말한다. 따라서 의료에 관한 윤리학적 연구는 의료윤리에 관한 철학적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 구분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의료윤리에 관한 법학적 연구와 의료법에 관한 윤리학적 연구는 그 차원이 다르다. “철학적 관점에서 본 의료윤리학”이란 의료윤리에 관한 철학적 연구를 말한다.

## 2. 메타 철학적 성찰: 정당화와 정의의 물음

따라서 이제는 철학적 관점 내지 철학적 연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명되어야 한다. 이 물음에 답하자면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철학에 대해 단 하나만의 정의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즉, 역사 이래로 다양한 ‘철학관(哲學觀)’이 존재해 왔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철학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다. 철학의 대상이 무엇이냐의 질문은 철학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철학의 대상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철학은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자연철학적 물음을 다루었던 반면에, 분석철학은 ‘대상 언어(object language)’가 아니라 ‘메타 언어(meta language)’를 철학적 탐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철학의 정의 및 그 대상에 관한 물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철학에 관한 ‘철학적’ 성찰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메타 철학(meta philosophy)’이라고 부를 수 있다. 메타 철학은 한 마디로 철학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이다. 의료윤리학의 한 주제인 임신중절을 예로 들어보자. 의학이나 법학 혹은 여성학이나 사회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임신중절 물음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학문적 논의와 구별되는 고유한 철학적 물음 내지 논의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학제적 연구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회의론

(?)은 철학자들을 “도대체 철학적 물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정말로 철학적 물음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우리는 철학이란 ‘왜(why)’를 묻는 학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철학적 물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답이 되는가? 해답이 되고자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다음 두 가지 물음을 해명해야 한다. 하나는 “‘왜’를 묻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물음이고, 다른 하나는 “철학은 ‘왜’만 묻는가?”의 물음이다. 후자의 물음부터 살펴보자. 철학은 ‘왜’만을 묻지 않는다. 철학은 ‘어떻게(how)’와 ‘무엇(what)’도 묻는다. 예를 들어, 임신중절에 대해 철학적으로 탐구할 때 우리는 “임신중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태아란 생물학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등과 같은 사실적 물음도 묻는다. 그러나 철학적 탐구에서 ‘어떻게’와 ‘무엇’은 이차적 물음 내지는 보조적인 물음에 불과하다. 즉, 철학적 탐구에서는 ‘왜’의 물음이 목적에 해당되고, ‘어떻게’와 ‘무엇’의 물음은 수단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왜를 묻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원인(cause)을 묻는 질문이고, 둘째는 이유(reason)를 묻는 질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목적(purpose)을 묻는 질문이다. 예를 들어, “사과는 왜 땅으로 떨어지는가?”라는 질문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물리적 원인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반면에, “우리는 왜 정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왜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은 인생의 목적 내지 삶의 의미를 묻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과학적 사고를 말하고, 세 번째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은 종교의 영역이다. 물론 철학은 세 번째의 물음, 즉 인생의 목적도 묻지만 주로 두 번째의 이유를 묻는다. 이런 차원에서 이유를 묻는 작업이 철학의 고유 영역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유를 묻는 물음은 의미(meaning)의 물음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허용된 임종 말기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어를 두고, 일부에서는 “존엄사는 윤리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해 그 이유를 묻는 작업이 철학적 탐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하자면 그리고 이 주장의 실천적 함의가 제대로 밝혀지자면 우리는 먼저 존엄사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의미 내지 정의(definition)의 물음이다. 물론 이러한 정의의 물음에는 존엄사와 안락사 구분하는 기준의 제시도 포함된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이 던지는 근본 물음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 주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의 물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주장이 합당한 이유를 묻는다.<sup>2)</sup> 전자가 의미(meaning)의 물음이라면, 후자는 정당화(justification)의 물음이다. 이러한 철학적 성격은 윤리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윤리학은 대개 의미를 묻는 분석윤리학과 정당화를 묻는 규범윤리학으로 구분된다. 물론 규범윤리학의 중심적 주제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왔는데, 이를 달리 말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에 관한 철학적 정당화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켈버와 거트는 죽음에 대해 정의(definition), 기준(criterion), 시험조건(tests)이라는 세 요소로 구분한 다음, 시험조건은 의학의 영역인 반면에, 정의하는 일은 철학적 과제요,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주로 의학과 철학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한다.<sup>3)</sup>

여기에 철학의 역할을 하나 더한다면 그것은 바로 새로운 문제 제기이다. 즉, 철학은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숨겨진 전제 내지 함의된 명제를 찾아 드러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엄정식 교수는 “철학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는 새로운 문제 제기에 있다.”라고 말한다.<sup>4)</sup> 그러면 의료윤리학의 경우 ‘새로운 문제’는 무엇인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전도서 1:10)”라는 성경 구절이 말하듯이, 의료윤리학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주제는 이미 고대 히포크라테스 선서 때부터 있어 왔던 물음들이다. 이는 비단 의료윤리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새로운’ 주제인가를 물을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혹은 학문 공동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를 다룬다면 그것은 분명 ‘새롭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필자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은 의료윤리에 관한 철학적 탐구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 II. 연구 방법

본 논문은 2003년 6월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총 13권)에 게재된 논문 102편을 철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의료윤리학’ 연구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sup>5)</sup> 즉, 필자는 의료윤리에 관한 연구를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범주화한 다음, 102편의 논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필자는 다음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2) Barcalow E. Justice, Equality and Rights, Belmont, CA: Wadsworth, 2004 : 2.

3) Culver CM & Gert M. The Definition and Criteria of Death, ed. by Mapps A & Zembaty JS. Biomedical Ethics(3rd ed). N.Y. : McGraw-Hill, Inc., 1991 : 391.

4) 엄정식. 세계 철학 대회 서울 개최와 그 의미. 우리길벗 2008 가을 ; 34 : 78.

5) 학회지는 1998년 11월 창간호 『의료·윤리·교육』에서 출발하여,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로 변경되었다가, 금년부터 『한국의료윤리학회지』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학회 역시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에서 금년부터 ‘한국의료윤리학회’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물론 특강, 특별보고 등의 비 학술적 논문은 제외하고, 학술적 논문만을 이 글은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학회지는 1998년과 1999년에는 연 1회 발간하다가, 2000년부터 연 2회 발간하였으며, 2009년부터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8권의 학회지는 57편의 논문을 싣고 있다.

첫째, 102편의 논문을 학문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현재 의료윤리학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의료윤리학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학문군으로 세분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의료윤리학은 의료윤리를 그 학문적 대상으로 삼지만, 학문적 연구방법은 다양하다. 왜냐하면 의료윤리학 자체가 상호학제적(interdisciplinary) 혹은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의료윤리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다음 여섯 개 범주로 정형화하고자 한다. 물론 이는 어떤 객관적 기준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필자의 임의적 구분이다. 그리고 어느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통합학문’에 속하는 연구도 분명 존재한다. 이는 구체적인 분석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 A. 의료윤리철학: 의료윤리에 관한 철학적 탐구
- B. 의료윤리교육학: 의료윤리에 관한 교육학적 탐구
- C. 의료윤리법학: 의료윤리에 관한 법학적 탐구
- D. 의료윤리사회학: 의료윤리에 관한 사회의식 조사 연구
- E. 의료윤리정치학: 의료윤리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 연구
- F. 기타: 의료윤리에 관한 그 밖의 연구

둘째, 102편의 논문 가운데 학제적 연구 논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앞서의 의료윤리학 분류가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논문을 찾아 그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철학과 교육학의 통합적 연구, 철학과 법학의 통합적 연구 등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필자는 통계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셋째, 의료윤리에 관한 도덕철학적 연구 논문을 논문의 성격, 연구자의 전공 등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의료윤리학 연구 방법에 따라 논문을 세분하고

자 한다. 즉, 의료윤리 물음에 관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섯째, 의료윤리학 연구 인력을 조망하고자 한다. 즉, 현재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원의 전공 분포도는 어떠한가,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학자는 얼마이며 또 그 전공의 분포도는 어떠한지를 다루고자 한다. 필자는 연구 인력을 크게 윤리철학자, 의학자, 교육학자, 법학자, 간호학자 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 구분 역시 임의적임을 밝혀둔다.

여섯째, 물론 이러한 통계 분석은 통계 분석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 대한 철학적 해석 및 의료윤리학 연구의 나아갈 방향 등도 함께 언급될 것이다.

### III. ‘의료윤리학’의 현주소: 학회지 논문 102편에 대한 통계적 분석

#### 1. 학문적 특성에 따른 논문 분류

논문 제목,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목적 등을 참고로 하여 102편의 논문을 앞서 밝힌 필자의 의료윤리학 범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표 1〉 학문적 특성에 따른 분류

연구자 수	편수
의료윤리철학	22
의료윤리교육학	18
의료윤리법학	13
의료윤리사회학	31
의료윤리정치학	16
기타	2
계	102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윤리사회학에 관한 논문이 31편으로 약 30%를 차지한다. 즉, 의료윤리 물음에 대한 사회적 인지 내지 의식을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연구한 논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새롭게 제기된 의료윤리 내지 의료윤리교육에 관한 사회 구성원, 특히 의료인들의 의식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뒤의 조사방법론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학문방법론에서 설문조사 방법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의료윤리정치학은 의료윤리 물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말한다. 그래서 연구윤리심의위원회나 병원윤리위원회에 관한 연구를 필자는 여기에 귀속시켰다. 뿐만 아니라 의사윤리지침이나 간호윤리지침 역시 의료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도 의료윤리정치학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관한 논문이 16편(15%)이다. 이는 한국 의료윤리학사에서 획기적인 몇몇 사건과 연관성을 지닌다.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으로 인한 환자 사망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한 보라매병원 사건, 소극적 안락사를 윤리적으로 허용하는 의사윤리지침 개정(2001. 11. 15),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공포(2000. 2. 9 제정, 2003. 3. 18 일부 개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2004. 1. 29 제정, 2005. 1. 1 시행), 황우석교수의 연구윤리 사건, 세브란스병원의 존엄사 소송 사건 등에 대한 의료윤리학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의료윤리학 연구는 크게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의료 현장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물음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문제 중심의 연구'요, 다른 하나는 '의료윤리학' 자체에 관한 메타철학적 성찰이다. 예를 들어, 임신중절이나 존엄사에 대한 연구는 전자에 속하는 반면에, 의료윤리

학의 성격이나 유형적 분류 등에 관한 연구는 후자에 속한다. 특이한 점은 102편의 논문 가운데 후자의 논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sup>6)</sup> 예를 들어, 의료윤리학의 역사에 대한 고찰은 존재하지만, 20세기 의료윤리학이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비판적 논의가 없으며, 의료윤리학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의료윤리학이 무엇인가 등에 관한 비판적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 학제적 성격의 논문

그 내용이 학제적 성격의 논문은 총 22편으로 21.6%를 차지한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학제적 성격 논문 분류

의료윤리 학제 분야	편수
철학 · 교육학	2
철학 · 법학	8
철학 · 사회학	2
철학 · 정치학	6
교육학 · 법학	1
교육학 · 사회학	1
교육학 · 정치학	1
법학 · 정치학	1
계	22

〈표 2〉에서 의료윤리 철학과 법학의 학제적 연구 논문이 많은 이유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등 법률이나 판례 등 의료윤리학에 분수령에 되는 사건에 대한 학자들의 철학적 관심이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철학과 정치학의 학제적 논문은 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병원윤리위원회, 연구윤

6) 의료윤리학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논의한 논문으로 홍석영, 생명윤리와 인간학,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2004 ; 7(2)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생명윤리학이 인간학적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대한 다학문적 접근 경향 탓으로 풀이된다.

총 22편의 학제적 논문을 연구자 수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자 수에 따른 학제적 논문 분류

연구자 수	편수
1인 연구	14
2인 연구	2
3인 연구	3
4인 연구	2
6인 연구	1
계	22

연구자 수 표가 말해주듯이, 1인 연구가 14편으로 63.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록 학제적 논문이지만 서로 다른 전공자들로 구성된 팀 연구가 미진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인 이상 연구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학문 전공자들의 공동연구가 많지 않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학제적 논문 가운데, 다학문 전공자의 공동 연구는 3편 정도이다.<sup>7)</sup> 〈표 4〉 학제적 논문.

#### 4. 의료윤리학 논문 세부 구분

철학이라는 학문 지도에서 의료윤리학은 윤리학, 그

것도 응용윤리학의 한 분야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철학은 크게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의 구분되며, 윤리학은 실천철학에 속한다. 물론 그 발생의 측면에서는 의료윤리학이 앞서지만 학문 분류에서는 생명윤리학의 한 분야로 의료윤리학을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생명윤리학이란 신조어를 탄생시킨 포터(V.R.Potter)의 정의에 충실한 분류이다.<sup>8)</sup> 따라서 철학에서 의료윤리학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철학 - 이론철학 - 윤리학 - 응용윤리학 - 생명윤리학 - 의료윤리학”. 의료윤리학이 응용윤리학의 한 분야라고 해서 응용윤리학적 요소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료윤리학 속에는 윤리학의 모든 분야가 스며들어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즉, 윤리학은 이론규범윤리학, 분석윤리학, 응용윤리학으로 대별되는데, 의료윤리에 관한 도덕철학적 연구는 이 세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철학은 의미와 정당화를 묻는다. 22편의 논문 가운데, 의미에 관한 논문으로는 양재섭·구미정(2004), 홍서연(2005), 김진경(2006a), 김진경(2006b), 최경석 외(2006), 양재섭·구미정(2006), 김문정(2008), 최경석(2009) 등 8편이며 모두 윤리철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이다. 그 외의 논문들은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정당화 물음을 다루고 있다.

의료윤리학에 대한 분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손명세는 의료윤리를 그 주제에 따라 인간관계의 윤리, 생명과 관련된 윤리, 의료분배와 관련된 윤리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한다.<sup>9)</sup> 반면에 권복규는 의료윤리학의 주

7) 이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음과 같다.

최경석, 김중호, 이경상, 구인회. 유전자 검사 및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유전치료의 문제: 유전자 결정론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2006 ; 9(2).

배현아, 이석배, 장혜영. 응급 환자 진료에서 설명 의무와 환자 사생활 보호 의무가 상충될 때의 대처.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2007 ; 10(1).

최은경, 김도균, 김옥주. 불법 행동이나 잠재적 불법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기밀 유지에 대한 법적·윤리적 고려.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2008 ; 11(2).

8) 포터는 생명윤리학을 “생물학 및 생명과학 일반적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리고 인간 복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물음들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Frey RG. Bioethics. ed by Craig E. Encyclopedia of Philosophy(vol. 1).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1998 참조.

9) 손명세. 의료윤리의 개념.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편. 의료윤리학(2판). 서울 : 계축문화사, 2003 : 47-49

〈표 4〉 학제적 논문

<p><b>철학 · 교육학</b></p> <p>권복규. 우리나라 의료윤리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6(6) ; 9(1)</p> <p>김진경. 의료윤리교육 방법론으로서 의사소통 행위이론의 가능성 모색. 2007(6) ; 10(1)</p> <p><b>철학 · 법학</b></p> <p>한성숙, 안성희, 엄영란, 구인희, 임종식, 권복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내용 및 시행 상의 문제점에 관한 학제간 연구. 2004(12) ; 7(2)</p> <p>엄영란. 뇌사판정위원회 관련 법령과 윤리적 고찰. 2004(12) ; 7(2)</p> <p>John Michael McGuire. Revising the Korean Bioethics and Biosafety Act. 2006(6) ; 9(1)</p> <p>최경석, 김중호, 이경상, 구인희. 유전자 검사 및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유전치료의 문제 : 유전자 결정론을 중심으로. 2006(12) ; 9(2)</p> <p>최경석. 무작위 임상실험의 윤리적 · 법적 문제. 2008(6) ; 11(1)</p> <p>최은경, 김도균, 김옥주. 불법 행동이나 잠재적 불법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기밀 유지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려. 2008(12) ; 11(2)</p> <p>이동익. 연명치료 행위의 중단에 대한 윤리적 고찰. 2009(6) ; 12(1)</p> <p>John Michael McGuire.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in South Korean: The Case of Ms. Kim, 2009(6) ; 12(1)</p> <p><b>철학 · 사회학</b></p> <p>정유석.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진료자율권. 2004(12) ; 7(2)</p> <p>박상형, 고윤석.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의료윤리 교육에 관한 경험 및 인식도 조사. 2007(12) ; 10(2)</p> <p><b>철학 · 정치학</b></p> <p>구영모. 의사윤리지침의 주요내용과 실천 방안. 2003(12) ; 6(2)</p> <p>유호종. 의사윤리지침의 유용성, 한계, 구속성. 2003(12) ; 6(2)</p> <p>엄영란. 병원윤리위원회 역할의 활성화 방안 탐색 연구. 2003(6) ; 6(1)</p> <p>한성숙.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심폐소생술포기(DNR)와 관련된 윤리문제. 2005(6) ; 8(1)</p> <p>류화신. 의료분쟁과 화해. 2006(12) ; 9(2)</p> <p>김진경. 의학적 의사결정 모델로써 공동의사결정의 이해. 2008(12) ; 11(2)</p> <p><b>교육학 · 법학</b></p> <p>임종식.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과 윤리. 2003(12) ; 6(2)</p> <p><b>교육학 · 사회학</b></p> <p>강은희, 이상욱, 조은희. 생명과학 전공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강의사례 보고. 2006(12) ; 9(2)</p> <p><b>교육학 · 정치학</b></p> <p>황순영, 배현아. 의료 전문직 윤리교육과 합리적인 의료오류보고 체계 마련을 통한 의료분쟁의 예방. 2008(06) ; 11(1)</p> <p><b>법학 · 정치학</b></p> <p>배현아, 이석배, 장혜영. 응급 환자 진료에서 설명 의무와 환자 사생활 보호 의무가 상충될 때의 대처. 2007(06) ; 10(1)</p>
--

제를 교육과 연관 지어 의료윤리 영역, 생명윤리 영역, 전문직 윤리 영역 등 세 부분으로 나눈 바 있다.<sup>10)</sup> 의료윤리학 논문 22편을 손명세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주제별 의료윤리학 분류

주제 영역	편수
인간관계의 윤리	8
생명과 관련된 윤리	14
의료분배 관련 윤리	0
계	22

이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의료윤리학 논의는 생명과 연관된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의료분배 물음을 철학적으로 다루는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의료윤리학 범주에 속한 논문을 저자에 따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총 15명(윤리철학자 7명, 신학자 2명, 의학자 4명, 자연과학자 2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22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참여 연구자 수에 있어서 철학자가 의학자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 발표 논문의 수에 있어서도 윤리철학자의 논문(13편, 59%)이 의학자의 논문(3편, 13%)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자연과학자의 논문은 2편이고, 의학자, 신학자, 철학자의 공동연구 논문도 1편이다. 윤리철학자로는 최경석(3.25), 구인회(3), 김진경(2), 홍소연(2) 등이 복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의학자로는 강명신, 권복규, 박재현 등이 각각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비록 논문 편 수 및 연구자의 수에 있어서 소수를 차지하지만, 의학자들이 의료윤리에 관한 철학적 연구에 점진적 성과를 거두는 일은 의료윤리학 발전에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된다.

〈표 6〉 연구자 수에 따른 의료윤리학 분류

연구자 수	편수
1인 연구	17
2인 연구	4
4인 연구	1
계	22

〈표 7〉 의료윤리학 논문

권복규. 인체조직물의 연구 목적 활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2003(6) ; 6(1)
구인회. 착상전진단의 윤리적 문제점들. 2003(12) ; 6(2)
구인회. 이종의식의 의학윤리적 제문제. 2004(06) ; 7(1)
양재섭, 구미정. 유전학적 맥락에서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구. 2004(06) ; 7(1)
구미정, 양재섭. 불가피성의 윤리와 불가분성의 윤리. 2004(06) ; 7(1)
유호중.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2004(06) ; 7(1)
홍석영. 생명윤리와 인간학. 2004(12) ; 7(2)
최경석. 인간배아연구의 도덕성 논란과 인간생명의 시작. 2005(06) ; 8(1)
홍소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의 기준. 2005(06) ; 8(1)
홍소연.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과 동의. 2005(12) ; 8(2)
김진경. 의료에서 의사의 실천적 지혜(phronesis). 2006(06) ; 9(1)

10) 권복규. 우리나라 의료윤리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2006 ; 9(1) : 70.



구인회. 인간배아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점들. 2006(06) ; 9(1)  
 양재섭, 구미정. 물화(物化)된 죽음으로서의 자살. 2006(06) ; 9(1)  
 김진경. 환자와 의사의 도덕적 대화를 위한 덕으로서 존중(Respect). 2006(12) ; 9(2)  
 최경석, 김중호, 이경상, 구인회. 유전자 검사 및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유전치료의 문제 : 유전자 결정론을 중심으로. 2006(12) ; 9(2)  
 양재섭, 구미정. 뇌사 담론에 내포된 생명관. 2006(12) ; 9(2)  
 강명신. 사회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의사의 전문직 역할도덕과 '초연한 관심'. 2007(12) ; 10(2)  
 박재현. 인체표본 전시회와 시신활용의 윤리. 2007(12) ; 10(2)  
 김문정. 죽임(Töten)과 죽게 내버려둠(Sterbenlassen) - 인과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작위(Unterlassen). 2008(06) ; 11(1)  
 최경석. 무작위 임상실험의 윤리적·법적 문제. 2008(06) ; 11(1)  
 이동익. 연명치료 행위의 중단에 관한 윤리학적 고찰. 2009(06) ; 12(1)  
 최경석. 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와 소위 '존엄사'의 구분 가능성. 2009(06) ; 12(1)

### 5. 연구방법론에 따른 분류

의료윤리학 연구방법론의 관점에서 보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8>에서 설문조사 연구와 현황 분석은 양적 연구방법론에 속하고, 판례분석과 문헌 연구는 질적 연구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머지 법 제

도 연구, 윤리위원회, 연구윤리 등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요소를 모두 지니기에 어느 한 편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양적 연구(39편)와 질적 연구(41)는 다소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표가 보여주듯이, 설문조사 방법과 문헌 연구 방법이 의료윤리 연구의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표 8> 연구방법에 따른 논문 분류

연구방법	편수
설문조사 연구	36
판례분석	4
법 제도 연구	10(윤리지침 3, 의료법 5, 정책 2)
윤리위원회	7
연구윤리	5
현황분석	3
문헌연구	37

### 6. 연구자의 전공 및 논문 편수

먼저 2009년 3월 현재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원은 총 212명이며, 전공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sup>11)</sup>

학회 회원은 의학계열 전공자가 압도적 다수(172명, 81.1%)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의학 전공자가 99명으로 46.7%를 차지하고, 간호학 전공자가 30명으로 14.1%를 차지한다. 반면에 인문사회계열 가운데는 철학 내지 윤리학 전공자가 12명(5%)으로, 인문사회계열 전

11) 이는 한국의료윤리학회 제12권 제1호(2009,3) 부록에 실린 회원을 그 소속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 의학계열 기타: 보건대학원 1명, 의료정책연구원 2명, 보건사회연구원 1명

\*\* 인문사회계열 기타: 국제학부 1명, 사회복지학 1명, 인문과학연구소 1명

\*\*\* 전체 기타: 전혀 소속을 알 수 없는 회원 16명과 유전의학 1명

〈표 9〉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원 전공별 분류

구분	세부전공	회원(명)	총(명)
의학계열	간호학	30	172
	의학	99	
	의학교육실	12	
	윤리학교실	2	
	인문사회의학	8	
	의료법윤리학	1	
	치의학	13	
	한의학	3	
	*기타	4	
	철학·윤리학	12	
인문사회계열	신학	2	23
	법학	4	
	교육학	2	
	**기타	3	
***기타		17	17

\*기타: 각주 11 참조.

공자 가운데는 가장 큰 비율(52%)을 차지한다. 의료윤리학이 근본적으로 인문학적 성격의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계열 연구자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의료인이 주축이 되어 의료윤리학회가 태동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선불리 의료윤리학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연관된 또 하나의 이유는 아직 인문사회과학계에서는 의료윤리학이나 생명윤리학이 학문의 주류가 아니라 주변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윤리학에 관한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

학자들의 의학 및 생명과학에 대한 전문지식의 함양과 응용학문을 학문의 주류로 여기는 학문관의 변화가 요망된다. 또한 철학이나 윤리학뿐만 아니라 법학, 교육학, 신학 등 다양한 학문 전공자를 회원으로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논문 편당 연구자 수의 분포도는 다음과 같다.

〈표 10〉 논문 편당 연구자 수

연구자 수	총 편수	동일 전공	복수 전공	삼복수 전공
1인	52	52		
2인	11	11		
3인	15	10	5	
4인	9	4	4	1
5인	8	4	1	3
6인	5		2	3
8인	1		1	
9인	1			

의료윤리학이 학제적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1인 단독연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sup>12)</sup> 2인 이상 공동 연구가 50편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연구의 경우에도 아직 학제간 혹은 통합학문적 연구가 미진하다. 2인 공동 연구의 경우 모두 동일 전공자로 저자가 구성되어 있으며, 3인 공동연구의 경우, 동일 전공이 10편인 반면에, 이질 학문의 복수 전공은 5편에 불과하다.

102편의 논문에 참여한 총 연구자의 수는 242명이고 논문 1편 당 2.37명이다. 이를 2009년 3월 현재 한국의료윤리학회에 등록된 총 회원은 212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산술적으로 대부분의 회원이 1편 이상의 논문 연구에 참여하였다는 결론이 얻어진다. 하지만 실제로 논문에 참여한 총 연구자는 123명으로 총 회원의 58%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의료윤리학 물음에 적극적 관심을

12) 단독 연구 논문을 발표한 28명의 학자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논문 편수를 뜻한다. 강명신, 강신익, 구영모, 구인회(3), 권복규(2), 김기경, 김문정(2), 김옥주, 김은성, 김진경(4), J.M.McGuire(3), 맹광호(2), 류화신(3), 박재현(2), 손영수, 엄영란(2), 안재현, 유호종(2), 이동익(2), 이상목, 이미애(3), 임종식, 정우열, 정유석(2), 최경석(4), 한성숙, 홍소연(2), 홍석영(2)

갖고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123명으로, 이들이 102편의 논문을 집필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102편 논문 가운데 단독 연구는 28명이 참여하여 총 52편이다. 최대 논문 발표자는 최경석으로 4.58편을, 그 다음은 김진경으로 4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편 이상 논문 발표자는 31명으로 전체 회원 212명의 14.6%에 해당한다.

#### IV. 맺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한국의료윤리학의 현 주소를 최근 6년간 발표된 102편의 논문 및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로부터 다음 결론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의료윤리학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의료윤리학의 실천적 특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의학자, 간호학자, 철학자, 교육학자, 법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학회 및 논문 저자로 참여하므로, 의료윤리학에 관한 학제적 연구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학제적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즉, 전체 논문 가운데 학제적 연구가 22편에 불과하며, 또 이질적 학문의 단순한 물리적 공동 연구가 아니라 화학적 공동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인문사회과학자들의 학회 및 연구진 참여가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윤리학 본래의 특성에 맞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학문 및 전공자의 다변화가 요망된다.

셋째, 주제별 접근법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료윤리학 자체에 대한 학문적 반성이 미흡하다. 물론

의료윤리학은 응용윤리학의 한 분야로 “어떻게 하면 의료윤리 물음을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 물음을 주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의료윤리학이 자율적인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을 하자면, 의료윤리학 자체의 성격, 방법론, 분류, 역사 등 의료윤리학 자체에 대한 연구가 다학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의료윤리학은 인간관계 윤리, 생명 관련 윤리, 그리고 의료자원 분배의 윤리 등 세 영역으로 세분되는데, 현재의 연구는 앞의 두 영역에만 편중되어 있고, 의료자원의 분배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나 판례에 대한 의료윤리학적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의료법 및 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의료윤리 의식 조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의료인들에 대한 의식조사 역시 요망된다. 의료 관련 윤리나 법률 혹은 제도는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의료윤리학 현주소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발자취를 추적하기 위해 앞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필자는 여기서 13권 102편의 논문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지만, 이전에 발표된 8권 57편의 논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의료윤리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료윤리학과 자매 관계에 있는 한국생명윤리학회(『생명윤리』)에 게재된 논문과의 비교연구 및 통합 연구도 절실하게 요망된다.<sup>13)</sup> ME

#### 색인어

의료윤리, 철학, 학제적 연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3) 이 논문은 2009년 한국의료윤리학회 정기학술발표회(2009. 6. 19. 서울아산병원)에서 “철학적 관점에서 본 의료윤리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심사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 A Statistical Analysis of 102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KIM Sang-Deuk\*

### ◉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evaluate Korean research on medical ethics today and propose a reasonabl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The evaluation i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102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from 2003 to 2009. First, I classify the articles into philosophy, pedagogy, law, sociology, and the politics of medical ethics. Second, I show how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medical ethics is carried out today. Third, I analyze the 22 articles that are classified as philosophical articles with regard to their subject matter and the author's major field of study. Forth, I subdivide the 102 articles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research employed. Fifth, I classify the 212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into moral philosopher, medical scientist, legal scholar, educator, and nurse. In addition, I show how many articles they produce and how much the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ethics. Finally, this article provides a philosophical critique of the concept of "medical ethics." I argue that one should not confuse the ethical study of medical practice with the academic study of medical ethics; the first examines medical ethics philosophically; the other involves legal, political, and social studies.

### ◉ **Keywords**

Medical Ethics, Philosophy, Interdisciplinary research,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 Department of Philosophy, College of Humanit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